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44

2008년 8월
교육학석사 (미술교육)학위논문

자기 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소 영

자기 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Graffiti Art Education Program for Self-Expression

- the case of school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소 영

자기 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소 영

정 소 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부교수 김승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전임강사 조윤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진원장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방법 및 내용.....2

Ⅱ. 이론적 배경.....3
1. 자기표현의 이론적 배경.....3
가) 자기표현의 정의.....3
나) 자기표현의 필요성.....4
다) 자기표현 훈련의 정의.....5
라) 자기표현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5

2. 낙서의 이론적 배경.....6
가) 낙서와 드로잉.....6
나) 낙서의 발생과 개념.....8
다) 낙서의 일반적 특징.....9
라) 낙서의 심리적 접근.....11
3.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활동.....14
4. 낙서를 통한 자기표현.....15
5. 현재 진행되는 7차 미술교육.....15

Ⅲ. 실태 조사.....24
1. 학생 - 자아인식 실태조사 / 낙서에 대한 인식 조사.....24
2. 교사 - 낙서에 대한 인식 조사.....32

Ⅳ. 연구의 실행.....37
1.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개발.....37
2.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수업 진행 결과.....50
3. 결과 분석 및 시사점.....57

Ⅴ. 요약 및 결론.....59
1. 요약 및 결론.....59

<참고문헌>.....62

<부록>.....63

<표 목차>

<표 1>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20
<표 2> 자기표현 평가 척도 검사지의 결과.....25
<표 3> 자아 인지 설문결과.....28
<표 4> 자아 만족감 설문결과.....29
<표 5>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유무 설문 결과.....29
<표 6>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종류 설문 결과.....29
<표 7>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29
<표 8> 자아 표현 욕구에 대한 설문 결과.....30
<표 9>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이해도.....31
<표 10>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경험.....31
<표 11>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방법.....32
<표 12> 학생들의 낙서 내용.....32
<표 13> 학생들이 낙서를 할 때의 감정.....32
<표 14>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느낌.....33
<표 15>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이해도.....34
<표 16>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견해.....34
<표 17>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34
<표 18> 교사의 낙서 활동 교육의 경험.....34
<표 19> 교사의 낙서활동의 활용 방법.....34
<표 20>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과 자기표현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35
<표 21> 연구 주제의 결과에 대한 견해.....35
<표 22> 교사의 낙서를 이용한 수업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견해.....35
<표 23> 4회기의 수업계획.....39
<표 24>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 - 학습 지도안1.....40

<표 25>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 - 학습 지도안2.....41
<표 26>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 - 학습 지도안3.....44
<표 27> 동적 가족화의 해석 내용 46
<표 28>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 - 학습 지도안4.....49
<표 29> 1회기의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결과.....51
<표 30> 2회기의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결과.....54
<표 31> 3회기의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결과.....55
<표 32> 4회기의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결과.....56
<표 33>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경험의 후 설문지.....60
<표 34> 학생들의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한 후의 느낌.....60
<표 35> 학생들의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61

<도판 목차>

<도판 1>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예시작1.....41
<도판 2>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예시작2.....41
<도판 3>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예시작3.....41
<도판 4> 동적가족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예시작1.....44
<도판 5> 동적가족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예시작2.....44
<도판 6>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결과물1.....51
<도판 7>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결과물2.....51
<도판 8>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결과물3.....52
<도판 9> 난화를 이용한 미술수업 프로그램 결과물4.....52
<도판 10>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나타내기 결과물1.....53
<도판 11>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나타내기 결과물2.....53
<도판 12>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나타내기 결과물3.....55
<도판 13>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결과물1.....56
<도판 14>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결과물2.....56
<도판 15>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결과물3.....57
<도판 16>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결과물4.....57
<도판 17> 낙서놀이를 통한 나의 생각 나타내기 결과물1.....57
<도판 18> 낙서놀이를 통한 나의 생각 나타내기 결과물2.....58
<도판 29> 낙서놀이를 통한 나의 생각 나타내기 결과물3.....58
<도판 20> 낙서놀이를 통한 나의 생각 나타내기 결과물4.....59
<도판 21> 낙서놀이를 통한 나의 생각 나타내기 결과물5.....59

ABSTRACT

A Study on Graffiti Art Education Program for Self-Expression: the case of school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So-young Jeong
Advisor: Prof. Won-Jang Jin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The rapid advance in social structure has put serious pressure on modern people while they try to keep up with new and changing environments. That phenomenon is concurrent with human isolation and dehumanization, and students have few chances to express themselves in school that places stress on academic achievement only. Therefore the kind of art education that encourages children with elastic potentials to develop their hidden potentials could be said an ideal art education. In this study, graffiti was utilized as a vehicle of self-expression.

Graffiti is a sort of spontaneous drawing. That is an act that one draws without being restricted by any particular rules or form. That is plain exposure of one's inner emotion or improvised mental image. And that is implicit self-expression and represents one's psychological and mental state. At the same time, there is social nature in it.

If graffiti activities that allow children to express themselves without any restraints are incorporated into the elementary curriculum, children will find art class more joyful and interesting, and their graffiti will enable teachers to grasp their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a graffiti-based teaching metho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and it's also meant to offer an opportunity for teachers to interpret their graffiti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m.

A survey was conducted on fifth-grade school children in Gwangju to find out their awareness of self-expression and graffiti, and teachers from the same region were surveyed to check into their perception of graffiti.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 fifth graders in Hwajeong- nam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gu, Gwangju. A graffiti art program was conducted to explore its applicability.

To get a precise psychological grip on fifth-grade school children who are about to reach adolescence, relevant theories were investigated to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self-expression and art educati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ffiti were described, and how to take a psychological approach toward graffiti was discussed.

All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to assess the children's self- esteem and

understanding of graffiti and the teachers' view of graffiti.

In the acting stage of this study, a graffiti art instruction program geared toward self-expression was presented and applied to the selected students. The program was conducted in a manner to offer a chance for the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and their homeroom teacher and this researcher joined forces in figuring out the psychology of the students, and information on the students provided by the homeroom teacher and art psychotherapy theorie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n every session, the children were stimulated to express themselves to their satisfaction without any restraints. In the first session titled 'Imagining and representing through graffiti play,' the disposition of the students was grasped, and the stories that they made by using visualized image unveiled their psychology. The second session titled 'Representing emotion through graffiti play' made it possible to screen the ego-centric students and all the children's peer relationship. In the third session titled 'Describing family through graffiti play,' how many people the students saw as their families and how they felt about their families were ascertained. The final fourth session titled 'Expressing my idea through graffiti play' made it possible to find out what the students concentrated their mind on. Given all the findings, it's concluded that the graffiti art instruction program geared toward self-expression enabled the students to disclose their inner world.

The students were surveyed to figure out how they felt about the art instruction, and it's found that they took a positive view of it.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necessity of graffiti-based art instruction, they gave a positive

answer as well.

Their homeroom teacher told that their graffiti was of great use to academic education and guidance since the graffiti showed their psychology and ideas. Analysis of the output of students in art instruction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student guidance, and teachers should be knowledgeable about art psychotherapy to grasp the psychology of students through their art work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인간소외현상, 인간성 상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성적만을 우선시 하여 학생들의 자아표현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그리기는 자기의 성장과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의 의미와 존재하고 있다는 생명체의 발산[1)]이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형태의 미술교육은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아동들에게 아동내부의 잠재 가능성을 보다 쉽고 충분하게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낙서를 통해 자아표현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낙서는 일종의 자발적 드로잉으로 규칙이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그리는 행위이다. 내면 깊은 곳의 감성이나 즉흥적 심상과 같이 순간적이고, 꾸밈없는 내적 질서로서, 하나의 표출인 것이다. 또한 은밀한 자기표현이며, 자기 발생적인 행위들로서 다양한 표현들로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며,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낙서는 특히 일종의 자기만의 고유 언어로 심리적 배설이라 할 만큼 무의식 속의 깊은 표현성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려나가는 것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전체적인 회화 표현 경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미술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지만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미술시간, 특히 표현 방법의 자신감과 의욕이 부족하여 그리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낙서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어린이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낸 것을 '낙서했다'고 하거나 쓸데없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하여 어린이들의 자기표현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낙서 활동을 학습에 이용하면어린이들도 보다 즐겁고 흥미로운 미술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학생들이 말로 전하지 못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1) 안호범,「미술을 통한 교육」(보육사, 1990), p.9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어린이들에게 낙서를 통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여 학생들이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둘째, 선생님들에게는 그 결과물을 해석하여 학생들의 실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내재된 정서를 존중하고 연구해 나가는 질적 연구에 역점을 두고자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적 입장에서 자기표현을 위해 낙서를 이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활동을 통해 심리치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미술수업의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을 심도 있게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선택하였다. 이에 낙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낙서의 일반적 특징과 낙서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자기표현과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자기표현과 낙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광주 지역 선생님을 대상으로 낙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적용 대상의 표본 집단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화정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낙서를 통한 미술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의 실행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적용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한 후의 결과물과 교사가 수업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미술심리치료의 이론내용을 첨부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 시 어린이들의 사고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개략적으로 주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전체 교육과정 중의 일부분이라는 한계성을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표현의 이론적 배경

가. 자기표현의 정의

국어 사전에서의 자기표현은 “자기의 내면적인 생각이나 생활을 겉으로 드러내 보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자기표현에 대한 개념의 어원은 솔터(Andrew Salter, 1940)[2)]가 말한 흥분반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분 반응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좁아 울페(Joseph Wolpe, 1958)[3)]가 권장한 후부터 ‘주장훈련’, ‘주장행동’, ‘자기표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주장하기’의 개념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입장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인격,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공격적 행동’이라고 변별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짓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자기표현은 자기를 내세우되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동시에 존중해 주는 행동, 일종의 ‘공감적 주장(Empathic Assertion)'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표현이란 용어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행위일체를 일컬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기표현에 관해 처음 관심을 가졌던 울페는 “자기표현이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비자기표현적인 사람은 그가 말해야 할 바를 알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솔터 이후로 자기표현의 개념은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으로 까지 확장되어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자기표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라자로(Richard S. Lazarus, 1971)[4)]는 자기표현을 ‘균형을 이룬 정서적 자유(balanced emotion freedom)'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앨더(Ronald B. Alder, 1986)[5)]는 ’자기표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

2)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솔터가 흥분반응 이론을 발표한 시기이다.
3)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울페가 ‘주장훈련’, ‘주장행동’, ‘자기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하는 이론을 발표한 시기이다.
4)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라자로가 자기표현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코즈비(Cozby Paul C, 1973)[6]는 자기표현을 '자기자신의 생각, 욕구,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보고 언어로서 전달하는 자기 신체에 관한 정보라고 설명하였고 주라드(Sidney M. Jourard, 1970)[7]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 정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자 1980년대 이후, 자기표현훈련의 실시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실시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심리상담 연구소의 김인자(1932- 현존, 1984)[8]는 자기표현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생각 및 느낌 등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성현(1947- 현존, 1997)[9]은 "자기표현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주장이나 감정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기술적이며 폭넓게 언어나 행동으로 솔직하게 나타내어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자기표현이 대인관계의 과정인지 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지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표현이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 동기에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상호변인이라는 것에 절충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자기표현을 정의해 보면,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느낌 등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언어나 행동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나. 자기표현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대인관계는 일시적이고 사무적이며, 인간관계는 깊이 있는 정서투여를 할 수 없고, 상호이해보다는 오해가 짙어져 인간관계 발전이 어렵게 되어만 간다. 특히 한국적인 문화· 환경· 교육조건은 정서관리 교육이 미비한 형편이라 대부분의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표현· 스트레스· 정서불안으로 원만하

---

5)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앨더가 자기표현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6)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코즈비가 자기표현의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7)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주라드가 자기표현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8)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 김인자가 자기표현의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9)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 이성현이 자기표현의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고 친밀한 인간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많은 행동수정주의 심리학자들은 자기표현 훈련을 권유하고 있다.

다. 자기표현 훈련의 정의

자기표현 훈련이나 이와 유사한 훈련들은 약 30여 년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술 훈련(Social Skills Training), 사회적 효율성 훈련(Social Effectiveness Training), 개인적 효율성 훈련(Personal Effectiveness Training), 표현 훈련(Expressive Training), 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대인관계 훈련 등이라 불리워지며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쓰고 있는 '자기표현훈련'의 원래 용어는 '주장훈련'(Assertuveness Training)이다. 홍경자 심리상담 센터의 홍경자(1940- 현존, 1988)[10]는 「한국에서는 주장행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입장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자기의 원리는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인격, 권리를 존중하기 않았기 때문에 주장훈련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공격적 행동'이라 변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짓고, 이상적인 주장행동은 자기를 내세우되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동시에 존중해 주는 행동이므로 일종의 '공감적 주장(empathic assertion)'이어야한다.」라는 주장성에 대한 이런 오해와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주장훈련이라는 대신에 자기표현 훈련이라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서 자기표현을 '자기주장훈련'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기표현훈련'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라. 자기표현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자기표현 훈련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술을 익혀 좀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의견, 감정들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기표현 훈련의 목적은 현대인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억제된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와 반응으로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없애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활 태도를 갖춰 보다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10)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 홍경자가 주장훈련의 정의를 발표한 시기이다.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앨더는 자기표현 활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면 자기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을 근거로 자기표현 훈련은 세 가지 견해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억제가 모든 고민 또는 범죄의 원천이며,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심한 정서적 혹은 성격적 문제를 지닌 환자로 보고,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그와 같은 환자들의 정신치료 또는 성격 고정에 불가결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나타내기 않고 억제하면 정신건강이 나빠진다는 정신위생학이론에 근거를 두는 입장으로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건강하고 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하여 능률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자면 보다 자기표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성장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실현의 이론에 기초하고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낙서의 이론적 배경

가. 낙서와 드로잉

연구자는 낙서를 논하기 전에 낙서와 드로잉의 관계를 논하려한다.

낙서는 주로 선적인 작업이며 조형행위의 시작부터(선사시대 벽화부터)낙서와 드로잉은 그 개념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형화된 소묘(Drawing)로 형식성을 지니게 되었고 회화에서 작품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각종 시작(試作) ·초고(草稿) ·밑그림의 역할을 하는 에스키스(Esquiss)의 역할을 해왔다. 이것을 드로잉으로 명칭하면서 낙서와 드로잉의 개념의 구분되었다. 따라서 드로잉과 낙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드로잉의 개념 변화를 알아보고 낙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다.[11)]

A. 드로잉의 개념 변화

드로잉의 사전 상의 의미는 ‘끌다, 당기다, 이끌다’로서 일반적인 개념은 단색 선을

11) 본 논문에서 쓰이는 낙서의 의미는 뉴페인팅 사조 중 한 장르인 낙서화(Graggitti)라는 painting작업이 아닌 순수한 행위로서의 낙서개념을 중심으로 논하는 것이다.

위주로 그리는 행위로서 밑그림, 초벌그림의 의미로부터 펜, 연필, 크레용 등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드로잉은 어떠한 장르와도 구별하기 힘든 광범위한 방법적이 다양성을 형성하며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드로잉은 회화의 조형요소인 색, 선 그리고 재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지는 선을 통한 표현인 것이다 즉, 드로잉은 가장 기본적이고 1차원적인 조형 활동이다.

현대 드로잉의 개념은 예술에 대한 통념이 바뀐 것만큼 많은 변화를 가졌다. 드로잉은 회화의 시작이고 비언어적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케치나 크로키, 설계도 등 모든 선적인 또는 단색을 위주로 표현하는 조형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요소였다. 즉 탐구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르네상스적 완결성'이라는 드로잉에 대한 개념이 근세로 오면서 드로잉은 재탄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드로잉은 점차 강렬하게 탐구되었고 드로잉은 과정 또는 보조 매체에서 하나의 독립매체로 전화되고 드디어 독자적인 장르로서 존립하게 되었다. 예술사에서 볼 때 드로잉이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식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대의 선은 그 기본적 역할이 단지 밑그리기와 형태를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즉 상징적인 형태의 완전한 존재감을 암시하는 것으로서의 선이었다. 이때의 대상은 기억할 수 있는 인상의 그림들이다. 미술가나 주술사는 자기의 머릿속에 대상을 상상하여 그릴 때 비본질적인 것은 일체 삭제한다. 즉, 명료한 이미지나 중요시 된 것만 제시한다.

중세의 것은 수법적인 면에서 그 기법이 우월했으나 무엇인가에 억제 당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실제감이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드로잉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물의 윤곽에 대한 표현의지는 선의 문제에 집착하기에 이르렀다. 선은 자연의 구체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묘는 하나의 완전한 상징적 추상 활동이며 개념형성 활동이었다. 투시법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것에 대한 서술의 형식이 아닌, 의식을 선형으로 토사하는 활동으로서 개념적 추상이었다.

그 후 미술이 세속성으로 돌아오면서 르네상스의 드로잉은 재현을 수단으로서 더욱 발전시키지만, 그 본질은 개념화에 두고 있다. 르네상스에 드로잉은 지금까지 인정되어 오는 통념으로서 그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완성작을 위한 밑그림으로서 예술사에 있어서 건축, 회화, 조각 등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비록 밑그림의 사용으로 그쳤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드로잉 북에서처럼 독자적인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르네상스의 드로잉에 비하면 선사시대 이전의 단순 묘사적 소묘에서 오히려 질은 원초적인 드로잉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정확한 사물의 대상을 묘사하는 드로잉에서 인상파로 넘어오면서 형태의 와해와 더불어 드로잉은 그의 선을 찾게 되었다.

즉, 드로잉은 드로잉 그 자체로서 예부터 존재해왔지만 인상파 이후 점차 과정성이

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하나의 표현 형성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근대주의적인 가치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에 있어서의 드로잉은 이전의 드로잉에 대립하여 자기 완결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완성된 회화도 물질적인 흔적이며 과정성을 포함하는 회화로서 파악하게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 낙서의 발생과 개념

낙서하는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잠재된 내부의식에 대한 욕구의 표출이며 자신을 찾아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서를 통하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인류가 태어난 이후 오늘날까지 인간 표현 행위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특징은 남과의 소통 해위로서 커뮤니케이션적 속성을 가지며 억눌린 자신의 사상관념, 의지를 발산하는 하나의 행위이다.[12)]

낙서의 발생을 살펴보면, 인간의 감성 표현의 수단으로 저절로 제작 의욕이 생성되는 감성 표현설과 인간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미술 행위를 한다는 오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13)]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낙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①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 곳에 함부로 쓴 글 또는 그 글자나 그림, '장난'글씨로 순화. ② 시사나 인물에 관하여 풍자적으로 쓴 글이나 그림이라 말하고 있다.

영어의 'Graggiti'는 이탈리아어인 '긁기'의 뜻을 지닌 'graggito'의 복수형으로 그리스어의 'graphein'에서 유래했다. 'Graffiti'는 '낙서', '긁어 그림' 등을 뜻하는 단어로 '벽에다 자국을 내는 것(scratching on the wall)' 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담벼락 같은 데다 은밀하게 뭔가를 표현하는 행위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서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든 정치적 메시지든 낙서하는 사람의 내면을 거쳐서 표현되므로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성을 갖는다.[14)] 또한 'Graffiti Art'는 각종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휘갈겨 그림 낙서 예술을 말한다. [15)]

다. 낙서의 일반적 특징

---

12)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2.

13) 조신자, "신표현주의에 나타난 낙서화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93) pp.9.

14) 장애란, "낙서적 경향을 통해 나타난 내면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6) pp.3.

15)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3.

A. 낙서는 일종의 자기만의 고유 언어이다.

낙서는 뚜렷한 조형 목적이나 의도 없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고 순수하게 발산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갖는다. 이런 의도 없는 우연적 표현 행위에서 오히려 신선한 표현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속에서 행위자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무의식 속에서 표출된 감정과 사상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지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기질과 성향이 단발에 드러나게 된다.

내면 깊은 곳의 감성이나 즉흥적 심상과 같이 순간적이고 꾸밈없는 내적 질서로서 행위자의 기질과 성행을 나타내며 행위자의 주관이 감상자에게 객관화 될 수 있다.[16] 낙서는 내면을 드러내고자 사는 욕구로서 자기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이 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B. 낙서는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행위이다.

낙서는 자신의 억압된 내면을 표출하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뚜렷한 조형 목적이나 의도 없이 솔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발산 표현한다는 점에서 낙서자는 꾸밈없이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여 외부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낙서자의 심리나 내면세계가 드러나게 된다.[17]

C. 낙서는 남과의 소통 행위이다.

낙서를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발견 할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사상, 관념, 주장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려 한다. 그런 면에서 낙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타인과의 소통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누군가 보고 읽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공공건물 등에 해놓는 낙서들은 수많은 익명의 낙서에 의해 끊임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낙서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문명사회가 만들어낸 단절감과 소외감에 대한 하나의 표출이며 첨단 도시문명 속에 내던져진 사람들의 정신적 욕망의 배설구로서 문명이 만들어 내는 억압에 대한 젊은이들의 해방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18]

---

16) 김미연,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하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2000) pp.15.

17) 장애란, "낙서적 경향을 통해 나타난 내면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6) pp.4.

18)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

D. 낙서는 거침없는 표현성을 갖는다.

낙서는 일종의 내적 감정의 발동으로 즉흥적으로 빠르게 표현된다. 주로 자유로운 선적묘사들이 대부분으로 내면과 외면의 울림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로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띠는 이성적인 조형표현보다는 불분명하고 경계되어지지 않은 드로잉들이 표출된다. 이것은 숙고를 통해 나오는 드로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투르면서도 순수한 힘을 지닌다.

E. 낙서는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특성을 갖는다.[19]

낙서는 '놀이'라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가 인간의 건강과 정신에 위협을 주고 있기에 사람들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낙서가 의미를 갖는다. '놀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긴장감이 사라진 느긋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누가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단지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20] 낙서는 놀이적 속성 속에서조차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철학과 자각 심리상태 더 나아가 사회비판, 풍자와 해학을 풀어놓기 마련인데 불후의 명작으로 남기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리는 과정을 철저히 즐기며 진지한 장난을 하는 셈이다.[21]
낙서의 유희성에서 나오는 즐거움은 쾌감이라는 감정과 상통하는 것으로 쾌감을 동반하는 유희는 인간본성과 직결된 것이고, 동시에 삶의 원동력과 같은 것이다.[22]

F. 낙서는 체험적이다.

미학자들이 말하는 체험은 대체로 우리의 마음이 지각 자료들을 모으고 질서를 세우고 형식을 부여하는 특별한 방식이라 했다. 존 듀이는 "하나의 체험은 총체적인 것이고, 고유한 개별적 성질과 자기 충족의 느낌을 동반한다. 이것이 한의 체험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즉 체험이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그것이 절정에 이르면 상호작용은 참여와 상호전달로 변형된다고 행각한 것이다.

대 교육대학원, 2004) pp..8-9.
19) 박성봉,「대중 예술의 미학」(서울: 동연, 1997) p.404-406.
20) 와타나베 마모루, 이병용譯 ,「예술학」(현대미학사, 1994) p.224.
21)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9.
22) 박준원,「예술노트」(미술문화, 1998) p.211.

낙서는 누구나 자기의 판단이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대상에 관해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언명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자기 개인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신의 표현으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 할 때 그리고 인간이 창조와 감상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구축하기 시작 할 때, 설령 그것이 표면적, 일시적 그리고 육체적인 차원의 체험일지라도 심오하고 영원하며, 공기같이 투명한 차원이 체험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꿀 필요 없이 미적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23]

G. 낙서는 장소에 있어서 구속을 지니지 않는다.

낙서의 장소는 개인적인 일기장에서부터 어린 시절 골목길의 담벼락,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 그리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유흥 공산 등 그 장소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낙서라는 것의 비도덕적일 수 있는 행위에 따른 몰래 하는 행위, 사적 내면의 표출, 짧은 시간에 그리고 도망가는 아슬아슬함 등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과 관계될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낙서의 장소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이용한 공공 장소로서 대체로 '벽'을 떠올릴 수 있다. 벽이라는 장소에 대한 의식은 공동체 미술로 발전하여 멕시코 벽화 운동을 비롯한 미국의 '흑인 벽화운동'과 관계괴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상업적 공간들 속에 그 낙서화가 인테리어 적 요소로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힙합(Hip-Hop) 음악과 함께 젊은이들의 저항적 메시지와 더불어 놀이 문화에 포함되어 있고 술집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쓰요 지고 있으며 또한 칙칙한 회색 도시의 구석진 콘크리트 벽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술의 하나로 전문화 되어 오고 있다.[24]

라. 낙서의 심리적 접근

A. 프로이드와 융의 창조적 무의식

프로이드[25](Sigmund Freud : 1856-1939)는 신의 영역이었던 예술의 창조성을 어느 부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고 , 그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은 인식

23) 이선교, "낙서를 이용한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8) pp.13-14.
24)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10-11.
25) Sigmund Freud :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 ·착각·해학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고, 소아성욕론(小兒性慾論)을 수립하였다.

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직관이라는 개념을 발생시켰다.

프로이드는 심적 개성의 해부를 과학적으로 시도하였다. 그것은 id-본능, ego-자아, super ego-초자아라는 세 개의 기구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본능은 우리 개성의 막연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대부분이 부정적인 성질(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망 그 자체인 개념으로서의 부정적 성질)로서 자아와 대조된다.

자아는 본능의 일부분이 외부 세계에 접근하여 그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한 것이고 제약이 없는 본능에 있어 사건의 과정에서 지배하는 쾌락을 제거하고 금기와 현실 원리에 맞추도록 작용한다.

초자아는 자기관찰, 양심, 이상 등의 인간이상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모든 도덕적 억압의 대행자이고 인간생활의 보다 놓은 측면을 지향하는 심리학적인 영역으로 본 것이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d, 1893-1968) 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본능 속에 억압된 어떤 힘이 변이된 상태에서 자아를 관통하고 도망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곧 승화라고 알려진 과정이고, 우리들이 도덕적, 종교적, 미적 이념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승화란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소망과 욕망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이념과 활동으로 변이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즉 예술의 생명력은 본능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26]이렇게 볼때 낙서는 또한 어떤 거창한 예술적 창조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본능의 승화이다.[27]

융[28](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의식을 외부세계에 고나한 방향 감각과 지각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융의 학설에 따르면 처음에 있던 것은 무의식적인 것이고 의식은 무의식적 상황에서 생겨났다고 하였다. 인간만이 자기인지가 가능한 생물로서 태어나서 무의식적 상황에서 먼저 신체와의 동체 성이 생기면서 자아감각, 나,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 의식은 이렇게 첫째로는 자기 신체,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둘째로는 일련의 기억에 의해서 형성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것이 의식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무의식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의 정신의 모든 것이라 하였고 그것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상의 특성을 이루는 것들이어서 이를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하였다.

---

26) 조요한,「예술철학」(경문사, 1986) p.131.
27) 이선교, “낙서를 이용한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8) pp.28-29.
28) Carl Gustav Jung : 1875-1961,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반면에 개인적인 특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이면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의식된 일이 없는 무의식 층이 있다 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였다.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근원적 유형들에 의하여 구성된다. 근원적 유형 또는 원형(原型)이란 지리적 차이, 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이며 우리마음속의 종교적 원천이다.」[29]

또한 원형 이미지란 역동적인 면과 형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역동적인 측면은 에너지의 표현 그 자체인 행위, 반응. 정서적 행동을 보통 개별의 형상인 외피를 통하여 놀이가 된다. 형상적인 측면은 꿈과 환상적 이미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 신화적 모티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30]

결국 의식적 개념이란 정신의 전체성의 한부분일 뿐이고 정신기능의 기본적이고 오리지날 한 단위는 이미지이므로 모든 정신의 과정은 하나의 이미지이고, 상상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융의 이론에서 “정신은 이미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이미지는 실제적이다”하는 점은 미학을 위한 중요한 진술인 것이다.[31]

무의식의 하나의 특징은 자율신경처럼 의식작용에 상관없이 스스로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는 자율성이다. 이 자율성은 하나의 창조적인 자율성으로 구속이 아닌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상항 뚜렷한 것은 아니며 오늘의 무의식이 내일 의식화 될 수도 있다. 의식 또한 뚜렷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 그 내용은 강하고 약한 여러 정도의 의식성으로 구별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무의식의 발견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 주게 되고 미술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던 이전의 여러 미술운동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제시로서 새로운 경향조류를 등장시키게 되었다

결국 무의식적인 의지는 작가의 내적 필연성이 괴는 것이며 창조된 작품 속에 펼쳐지는 의식에 의한 무의식은 작가의 개성과 의도에 나타나는 표현인 것이다.[32]

B. 아른하임의 조형의식

---

29) 이부영, 「분석 심리학」 (서울: 일조각, 1998) p.61.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7.

30) 이유경, :예술로서의 창조적 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7) pp.13-14.

31) 이선교, “낙서를 이용한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8) pp.29.

32)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pp..8.

아른하임[33](Rudolf Arnheim : 1904~2007)은 낙서화는 감성적 이미지의 나열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들은 도식적, 총체적 이미지들이지 예리한 정신적 상들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각적 감성의 역할은 개념 형성과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추상적 이미지가 사고에 작용하는 것이다.

낙서에서 시각적 · 추상적 · 도식적 · 정신적 표상능력은 경험을 인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른하임의 예술적 표현이란 표현내용의 의사전달이 어떤 경험 즉 지각된 패턴을 이루는 힘의 적극적 제시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의 표현성이 시각패턴을 이루는 힘의 적극적 제시를 요구한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기억에서 이끌어 내어 그 대상에 다 투사할 수도 있는 직관이나 감정에 대한 단서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낙서가 가진 특유한 감성의 표현에 대해 형태심리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아른하임은 두 가지 유형으로 사고를 분류하였다. 즉 지각 성분이 없이 생기는 자동적 또는 분석적 사고와 지각적 성분과 함께 생기는 산출적 또는 종합적 사고로 분류하였다.[34]

3.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활동

자기표현 미술활동은 아동이 흥미를 지니는 다양한 매체와 자유로운 미술 방법을 통해 인간의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적인 미술 매체와 행위로 표현하여 언어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감소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재료를 나누어 쓰고 공동작품을 만들어 다른 아동에게 발표하는 언어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일반, 학업, 사회, 정서, 자아개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된다

자기표현이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정보 전달은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등의 시각적 행동과 상징적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자기표현의 범위를 미술활동까지 확장하여 발전시켰다. 미술에서의 표현은 자기 심상의 소극적인 표출이며 사회적 승인을 위한 기호체계로 보았다. 개인은 부정적인 자기의 심상을 표출하고 승화시킴으로서 기존의 부정적인 가치체계에서 긍정적인 가치 체계를 수립한다. 그러므로 표출되지 않은 인간 내부의 감정은 미술표현에 의해 새롭게 계발되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에서의 표현은 자기성장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35].

---

33) Rudolf Arnheim : 1904~2007, 독일 미술비평가· 예술심리학자. 독일 출생
34) 천명선, "R.Arnheim의 도성예술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2) pp.32.
35) 이정인, "兒童美術의 創意的 表現과 動機誘發과의 相關關係"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1991)

4. 낙서를 통한 자기표현

낙서는 보통 아동그림의 최초의 단계로 다음 발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으로 이성보다는 무의식적인 감성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형상화 된 개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낙서를 그려낸다. 어린이의 낙서는 다른 어떤 것을 모방한 낙서보다도 독자적이고 특별한 종류의 기쁨을 주며 낙서에 나타난 사각형, 원, 그리고 다양한 선들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간의 첨가나 수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구상 현태로 전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36]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속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개개인들의 불안, 두려움 등은 의식적으로 억압되어 표출될 기회를 잃는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낙서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낙서는 억눌린 자신의 사상, 관념,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외부로 자신을 노출시킨 결과 낙서를 통한 자기표현으로 남과의 소통 행위를 가능하게 된다.

5. 현재 진행되는 7차 미술교육

가. 미술교육의 교육적 의의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한 아동 자신의 생활이며, 표현이자 발달의 반영이며 기록인 아동의 미술표현은 인산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역의 성장과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므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수반된 고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37]

미술활동은 아동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활동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미술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이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조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동료들의 활동을 비교하면서 관찰력과 평가법을 배우게 되며, 미술활동을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을 발전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르게 된다.

---

36) 백호선, “현대회화에 나타난 아동학적 요소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7) pp.32.
37) 양정희, 「21세기를 위한 아동 미술교육」 (서울: 학지사, 1997) p.14.

둘째, 아동들은 그림을 드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므로 긴장을 풀 수 있고 만족감을 얻게 되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셋째, 그림 그리기, 가위질, 뜯어 붙이기 등으로 손가락의 민첩성과 손목, 팔의 소(小)근육 운동기술 발달, 눈과의 협업을 통한 조화 능력 등 신체의 감각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리는 동안 아름답게 느끼고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심미적 표현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미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38]

아동 미술교육은 위와 같은 네 가지 특성들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므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

나. 미술교육의 목적

미적 정서의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미술교육의 일반 목표는 미술의 표현활동이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창조활동 이라는 점에서 미술교육이 감정교육, 즉 감정의 육성과 개발을 과제로 하는 중요한 교육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39]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개인의 원만한 인격적 성숙과 조화 있는 인간성 육성에 있다. 미술교육에서 추구되어 온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40]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미적 인식'의 신장이라든가 '미적 인간의 육성'등은 궁극적인 미술교육의 목표로 함축 될 수는 있겠으나,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목표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사물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일깨우는 데 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운다는 사실은 앎을 터득하고, 이해하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술은 개념이나 지식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바라보고 매만지는 구체적 물성 체험을 통해 생동하는 존재의 본질을 지각하면서 표현하고 향수하면서 앎을 터득하게 한다. 이를 미적 앎(aestheitic knowing)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심화된 미적 체험으로 대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자신과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즉, 자신의 내면세계나 외부세계를 시각적 언어인 미술을 통해 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

---

38) 김 정,「아동미술 입문」(서울: 일지사, 1978) p.119.
39) 김정희 외,「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2006) p.18.
40) 임정기 외,「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서울: 예경, 2006) p.32.

셋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조형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한다.

넷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 개성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 타 교과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자기를 표현하는 교과이므로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41]

일반적으로 교육이 인간 가능성의 최대치를 이끌어 내거 성장시키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인간형성의 과정이라면 미술교육은 아동에게 조형적인 창조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표현 · 감상활동을 통한 창작의 기쁨을 알게 하며 풍부한 정서를 육성하여, 한 인간이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기체험을 확장하고, 미적인 자기교육의 힘을 육성하여, 나아가 스스로 미적 인간실현으로서의 자기성장을 돕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다. 현 미술과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목표면, 내용면, 운영면, 제도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표면에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교육의 충실이고, 내용면에서는 국제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이며, 운영면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이고, 끝으로 제도면에서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교육운영을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화하였다 또한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으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정하여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적으로 익히게 하였다는 점이다.[42]

---

41) "*ibid.*, p.34."
42) 권준범, 「초등미술과 교수 방법론」(서울: 교육과학사, 2005) p.75.

A. 성격[43)]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이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미술 교과 교육에는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네,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미술 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3, 4, 5, 6학년) 수준에서의 '미적 체험'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애호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 (7, 8, 9학년)수준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여 활용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10학년) 수준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초등 학교(3, 4, 5, 6학년) 수준에서의 '표현' 은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창의적인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중학교(7, 8, 9학년) 수준에서는 발상력을 북돋워 주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창의적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고등 학교(10학년) 수준에서는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43) 교육 인적 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5학년, 2007, p.6-7.

초등 학교(3, 4, 5, 6학년) 수준에서의 '감상'은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의 특징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7, 8, 9학년) 수준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다. 고등 학교(10학년) 수준에서는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며 미술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요구를 반영한 교과 내용 구성 체제와 더불어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였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과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미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이 강조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의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감상'교육이 강조되었다.

초등 학교에서의 미술과 교육은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미술과ㅏ 교육을 통해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미적인 안목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의 미술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북돋우며,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등 미술 표현에 필요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B. 목표[44)]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연계성을 살린 미술과 교육을 위하여 미술 교과 총괄 목표 아래 학교 급별의 수준을 두지 않고 세 개의 구체적인 하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C. 내용[45)]

제 7차 교육 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학생

44) "*ibid.*, p.7."
45) "*ibid.*, p.8."

의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별, 학년별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수준 및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과정에 의하면, 초등 학교의 경우 기초 · 기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자 중심의 체험 활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수 · 학습 내용에 따라 교육 과정을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술과에서는 제 7차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이루어진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미적 체험’, ‘표현’ 및 ‘감상’은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표현’ 활동 영역에서는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의 네 가지 기본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표현 활동시 기본적으로 이를 무두 성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을 초등 학교 3, 4학년과 5, 6학년을 함께 묶어서 2단계로 제시하였다.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발달 단계에 따라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활동이 강조된 반면, 중 · 고등 학교로 갈수록 미술에 대한 교양과 미적인 안목을 발달시키고자 감상 활동이 강조되었다. 교육 과정상에 제시된 5, 6학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필수 학습 요소	초등학교 5, 6학년 미술과 내용
1.미적 체험	(1)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 ② 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에서 변화를 발견한다.
	(2)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① 자연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찾아본다. ②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발견한다.
	(1)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낸다. ②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③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

2.표현	(2) 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낸다 ② 판본체, 궁체로 쓴다.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②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쓴다.
	(4) 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나타낸다. ② 용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활용한다.
3.감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① 서로의 작품에서 표현 특징을 찾아본다. ② 서로의 작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한다.
	(2)미술품 감상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살 수 있다. ① 우리 나라의 다른 나라의 미술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본다. ②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한다.

D. 방법[46)]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지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지도 계획은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둘째, 학교 및 지력 사회의 특성, 행사나 계절 등ㅇ르 거려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다섯째, '미적 체험'은 현장 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여섯째, '표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①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②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는 표현 활동 속에서

46) "*ibid.*, p.10."

통합 할 수 있다.

③ 교육 과정상의 내용에서 제시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는 표현 활동 속에서 통합할 수 있다.

④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 한다.

⑤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⑥ '미적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⑦ 표현 활동 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일곱째, '감상'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①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④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⑤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⑥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발달 단계에 따라 표현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동기 유발로서 도입 단계에서 흥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상' 영역에서는 작품 감상을 지도할 때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작품과 미술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이 강조되었다. 올바른 감상 태도의 육성은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초 단계를 마련해 주며, 주변 세계와 미술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해 줄 수 있다.

E. 평가[47]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교육의 평가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상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어린이의 미술수업 능력은 개인의 특성과 발달 정도에 따라 흥미와 적성, 소질, 개성 등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47) "*ibid.*, p.11."

점을 고려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린이 작품 평가에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를 강조한다.

둘째,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 한다. 표현 활동에서 작품 결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태도라 발표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 관련 내용의 이해와 적용 능력 등 최종 작품 평가와 함께 학습 활동시의 행동 특성이나 발달 과정을 수시로 관찰형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미술과는 과목의 특성상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질적평가이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들 수 있다.

넷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미술과 교육의 목적은 미술품 생산을 위한 일부 미술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미술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표현 영역뿐 마니라 생활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미적 체험을 영역과 조형품을 보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감상 영역의 평가가 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평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미술활동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어린이의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 결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술하여 제시하고,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한다. 어린이들이 학습활동 중에 쏟는 많은 노력과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서를 해칠 수도 있다. 미술과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므로 어린이들의 주관적인 표현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의 개인별 성장 정도를 서술하는 것이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미술과 교육의 특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미적 체험'은 다양한 체험 활동 결과를 통해 관찰, 탐색, 비교 조사, 수집 등의 방법으로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와 미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활에서의 미술의 역할에 관해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평가한다. '표현'은 주제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평가관점으로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즉, 표현 과정과 결과물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표현 능력, 표현 활동과 관련된 재료와 용구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표현방법, 전체적인 짜임새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성, 응용 표현력, 실용성, 이해력, 표현과정에서의 태도, 재료 및 용구의 준비성, 표현활동에 참여하는 성실성, 작품 완성에 대한 끈기와 집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감상'은 미술품, 미술 용어와 관련된 지식, 이해, 미술

품 감상에서의 지식 또는 이해의 적용 능력, 미술품 감상에서의 특징적인 내용 분석력, 미적 가치 판단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는 능력, 발표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교사의 설명, 비평, 친구의 발표를 듣는 태도,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Ⅲ. 실태조사

1. 설문조사 및 분석

가. 학생 실태 조사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마지초등학교, 화정남 초등학교)의 남학생 160명과 여학생 160명으로 총 학생수는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동일 학년 집단을 모집하였으며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표현 평정 척도 검사지와 연구자가 만들어 낸 설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을 인지하는 정도와 낙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31일 - 4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각 문항별 빈도(N)와 비율(%)로 나타내었다.

A. 자기표현 평정 척도 검사

본 연구자가 사용한 도구는 라커스와 슈뢰더(Rakos R. F. & Schroeder H. E., 1980)[48]의 주장행동 척도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변창진 · 김성희(1980)의 자기표현 평정 척도[49]이며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한 내용(contents)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요소가 포함되어있는지 평정하는 문항이 9개, 말할 때의 음성(paralinguistics)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정한 문항이 7개이고,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이 체언(non-verbal)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정하는 문항 4개로 구성되어있다.

검사지에서는 5단계 척도법을 적용시켜 항상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5점으로 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빈도에 따라 4점, 3점, 2점 1점을 주어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48) 괄호 안의 부연설명은 학자의 full name과 학자가 주장행동 척도를 발표한 시기이다.
49)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1980년에 발표한 주장훈련 프로그램

자기표현 검사에서 얻은 점수는 자기표현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표현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바람직하게 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 점수가 낮을수록 비(非)자기 표현적이다.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31일 - 4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마지초등학교, 화정남 초등학교)의 남학생 160명과 여학생 160명으로 총 학생수는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기표현 평가 척도 검사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

구분	번호	문 항	성별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그렇지 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합 계	
				1-2번정도		3-4번정도		5-6번정도		7-8번정도		9번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내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남	50	31.25	40	25	60	37.5	8	5	2	1.25	160	100%
			여	54	33.75	40	25	44	27.5	16	10	6	3.75	160	
			평균	104	32.5	80	25	104	32.5	24	7.5	8	2.5	320	
	2	나는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 한다.	남	90	56.25	41	25.625	15	9.375	13	8.125	1	0.625	160	100%
			여	71	56.875	39	24.375	21	13.125	6	3.75	3	1.875	160	
			평균	161	50.3125	80	25	36	11.25	19	5.9375	4	1.25	320	
	3	나는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남	79	49.375	50	31.25	28	17.5	2	1.25	1	0.625	160	100%
			여	99	61.87	33	20.625	20	12.5	5	3.125	3	1.875	160	
			평균	178	55.625	83	25.9375	48	15	7	2.1875	4	1.25	320	
	4	나는 사과를 많이 한다.	남	45	28.125	60	37.5	30	18.75	16	10	9	5.625	160	100%
			여	62	38.75	49	30.625	23	14.375	13	8.125	13	8.125	160	
			평균	107	33.4375	109	34.0625	53	16.5625	29	9.0625	22	6.875	320	

용	5	나는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남	50	31.25	71	44.375	21	13.125	15	9.375	3	1.875	160	100%
			여	71	44.375	48	30	31	19.375	9	5.625	1	0.625	160	
			평균	121	37.8175	119	37.1875	52	16.25	24	7.5	4	1.25	320	
	6	나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남	72	45	57	35.625	28	17.5	2	1.25	1	0.625	160	100%
			여	85	53.125	48	30	25	15.625	2	1.25	-	-	160	
			평균	157	49.0625	105	32.8125	53	16.5625	4	1.25	1	0.3125	320	
	7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남	73	45.625	55	34.375	25	15.625	6	3.75	1	0.625	160	100%
			여	97	60.625	35	21.875	23	14.375	3	1.875	2	1.25	160	
			평균	170	53.125	90	28.125	48	15	9	2.8125	3	0.9375	320	
	8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남	81	50.625	51	31.875	20	12.5	5	3.125	3	1.875	160	100%
			여	99	61.875	37	23.125	14	8.75	7	4.375	3	1.875	160	
			평균	180	56.25	88	27.5	34	10.625	12	3.75	6	1.875	320	
	9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남	91	56.875	40	25	28	18.125	1	0.625	-	-	160	100%
			여	108	67.5	36	22.5	16	10	-	-	-	-	160	
			평균	199	62.1875	76	23.75	44	13.75	1	0.3125	-	-	320	
	10	나는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남	92	57.5	41	25.625	25	15.625	2	1.25	-	-	160	100%
			여	108	67.5	34	21.25	16	10	2	1.25	-	-	160	
			평균	200	62.5	75	23.4375	41	12.8125	4	1.25	-	-	320	

음성	11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남	100	62.5	40	25	12	7.5	8	5	-	-	160	100%
			여	85	53.125	38	23.75	26	16.25	8	5	3	1.875	160	
			평균	185	57.8125	78	24.375	38	11.875	16	5	3	0.9375	320	
	12	나는 말이 입안에서만 중얼거린다.	남	115	71.875	35	21.875	8	5	2	1.25	-	-	160	100%
			여	110	68.75	24	15	17	10.625	6	3.75	3	1.875	160	
			평균	225	70.3125	59	18.4375	25	7.8175	8	2.5	3	0.9375	320	
	13	나는 억양이 어색하다.	남	115	71.875	32	20	10	6.25	2	1.25	1	0.625	160	100%
			여	120	75	17	10.625	16	10	4	2.5	3	1.875	160	
			평균	235	73.4375	49	15.3125	26	8.125	6	1.875	4	1.25	320	
	14	나는“에-”, “음-”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남	111	69.375	26	16.25	8	5	8	5	7	4.375	160	100%
			여	102	63.75	35	21.875	16	10	5	3.125	2	1.25	160	
			평균	213	66.5625	61	19.0625	24	7.5	13	4.0625	9	2.8125	320	
	15	나는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 한다.	남	99	61.875	40	25	13	8.125	4	2.5	4	2.5	160	100%
			여	98	61.25	36	22,5	17	10.625	7	4.375	2	1.25	160	
			평균	197	61.5625	76	23.75	30	9.375	11	3.4375	6	1.875	320	
	16	나는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남	85	53.125	50	31.25	22	13.75	1	0.625	2	1.25	160	100%
			여	101	63.125	35	21.875	17	10.625	5	3.125	2	1.25	160	
			평균	186	58.125	85	26.5625	39	12.1875	6	1,875	4	1.25	320	
	17	나는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남	116	72.5	25	15.625	11	6.875	6	3.75	2	1.25	160	100%
			여	109	68.125	31	19.375	10	6.25	5	3.125	5	3.125	160	
			평균	225	70.3125	56	17.5	21	6.5625	11	3.4375	7	2.1875	320	
	18	나는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남	97	60.625	33	20.625	15	9.375	10	6.25	5	3.125	160	100%
			여	109	68.125	33	20.625	14	8.75	4	2.5	-	-	160	
			평균	206	64.375	66	20.625	29	9.0625	14	4.375	5	1.5625	320	

체언	19	나는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굴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남	111	69.375	38	23.75	5	3.125	3	1.875	3	1.875	160	100%
			여	113	70.625	29	18.125	10	6.25	4	2.5	4	2.5	160	
			평균	224	70	67	20.9375	15	4.6875	7	2.1875	7	2.1875	320	
	20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 있다.	남	129	80.625	17	10.625	10	6.25	1	0.625	3	1.875	160	100%
			여	138	86.25	16	10	5	3.125	1	0.625	-	-	160	
			평균	267	83.4375	33	10.3125	15	4.6875	2	0.625	3	0.9375	320	

위의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이상에 평균 약 82%로 자기표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용 부분의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에서 학생들 중 약 32%가 <가끔 그렇다>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자기표현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B. 학생 자아 인지조사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

질문내용	성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남	73	45.625	50	31.25	28	17.5	6	3.75	3	1.875	160	100%
	여	82	51.25	60	37.5	18	11.25	-	-	-	-	160	100%
	평균	155	48.4375	110	34.375	46	14.375	6	1.875	3	0.9375	320	100%

<표 4 >

질문내용	성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나요?	남	47	29.375	36	22.5	60	37.5	9	5.625	8	5	160	100%
	여	12	7.5	59	36,875	71	44.375	17	10.625	1	0.625	160	100%
	평균	59	18.4375	95	29.6875	131	40.9375	26	8.125	9	2.8125	320	100%

<표 5 >

질문내용	성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는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남	68	42.5	92	57.5	160	100%
	여	91	56.875	69	43.125	160	100%
	평균	159	49.6875	161	50.3125	320	100%

<표 6 >

질문내용	성별	글을 쓴다		그림을그린다		말을 한다		시를 짓는다		기타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	21	13.125	21	13.125	92	57.5	5	3.125	21	13.125	160	100%
	여	37	23.125	30	18.75	87	54.375	-	-	6	3.75	160	100%
	평균	58	18.125	51	15.9375	179	55.9375	5	1.5625	27	8.4375	320	100%

<표 7 >

질문내용	성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남	36	22.5	43	26.875	58	36.25	13	8.125	10	6.25	160	100%
	여	36	22.5	30	18.75	81	50.625	10	6.25	3	1.875	160	100%
	평균	72	22.5	73	22.8125	139	43.4375	23	7.1875	13	4.0625	320	100%

<표 8 >

질문내용	성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나는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고 싶다	남	17	10.625	32	20	84	52.5	24	15	3	1.875	160	100%
	여	40	25	27	16.875	65	40.625	18	11.25	10	6.25	160	100%
	평균	57	17.8125	59	18.4375	149	46.5625	42	13.125	13	4.0625	320	100%

<표 3>의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보통이다'이상의 문항에 전체 학생 중 약 97% 이상의 학생이 답문을 하였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약 3%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의 결과로 보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는 '보통이다'이상의 비중이 약 89%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학생이 전체 학생 중 약 11%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이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5>의 질문에서의 학생들의 응답은 '있다'와 '없다'의 응답이 약 50% 정도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와 그렇게 못한 경우가 양분된 현상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이 정 반대로 남학생은 <없다>가 여학생은 <있다>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의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남 · 여 평균 말을 하는 것이 약 56%로 나타났으며 이 아이들은 의사표현을 하는 것과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견으로는 글, 그림, 말 등을 복합적으로, 비밀노트, 혼잣말, 부모님과의 대화, 취미활동, 특히 남학생들일 경우 자신들이 즐기는 운동을 통해 표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7>의 결과 남· 여 평균 약 89%정도가 <보통이다>이상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 대부분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통이다>의 대답이 약 43%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된다.

<표 8>의 긍정적인 응답인 <보통이다>이상의 답변은 약 83%로 나타났다. <표 7>보다 더 낮은 답변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즐겁지만 수줍은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실태 분석

낙서에 대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낙서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9 >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이해도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공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3.125	2	1.25	7	2.1875
2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5	9.375	7	4.375	22	6.875
3	보통이다	39	24.375	43	26.875	82	25.625
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	19.375	65	40.625	96	30
5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70	43.75	43	26.875	113	35.3125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10 >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경험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아주 많이 한다	6	3.125	9	5.625	15	4.6875
2	많이 한다	21	13.125	20	12.5	41	12.8125
3	보통이다	67	41.875	83	51.875	150	46.875
4	하지 않는다	47	29.375	43	26.875	90	28.125
5	전혀 하지 않는다	19	11.875	5	3.125	24	7.5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11 >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방법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신문이나 이면지	32	20	43	26.875	75	23.4375
2	책이나 공책	88	55	85	53.125	173	54.0625
3	벽(교실, 건물, 담)	9	5.625	7	4.375	16	5
4	흙바닥	30	18.75	15	9.375	45	14.0625
5	기타	1	0.625	10	6.2	11	3.4375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12 > 학생들의 낙서 내용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지금의 마음 상태	32	20	59	36.875	91	28.4375
2	노래가사	4	2.5	3	1.875	7	2.1875
3	비밀이야기	9	5.625	14	8.75	23	7.1875
4	그림	99	61.875	75	46.875	174	54.375
5	기타	16	10	9	5.625	25	7.8175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13 > 학생들이 낙서를 할 때의 감정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즐거울 때	19	11.875	23	14.375	42	13.125
2	우울할 때	24	15	30	18.75	54	16.875
3	미울 때	13	8.125	13	8.125	26	8.125
4	아무때나	56	35	78	48.75	134	41.875
5	답답할 때	48	30	16	10	64	20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14 >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느낌

	문 항	남		여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아주 즐거웠다	11	6.875	5	3.125%	16	5
2	즐거웠다	21	13.125	27	16.875%	48	15
3	그저 그랬다	94	58.75	119	74.375%	213	66.5625
4	좀 기분이 나빴다	17	10.625	9	5.625%	26	8.125
5	아주 기분이 나빴다	17	10.625	-	-	17	5.3125
	합 계	160	100%	160	100%	320	100%

<표 9>에서 낙서 활동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약 34.6%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 65.3%로 낙서활동이 공부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0>에서 낙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약 35,6%이고, 보통으로 답한 학생들이 약 46.8%, 낙서활동을 많이 한다는 학생은 약 17%로 답한 것으로 보아 낙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낙서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것으로 유추되어지고 또한 아직 낙서활동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있디 않다고 생각된다.

<표 11>에서 학생들은 낙서활동을 신문이나 이면지에는 약 23.4%, 책이나 공책에는 약 54%로 가장 많았고 흙바닥에는 약 14%정도로 낙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장소로는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 필통 등의 나의 물건, 아무데나 등이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물품에 낙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수업에 이용하여 낙서를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다양한 수업 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12>에 의하면 학생들은 낙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약 54.3%로 가장 놓게 나타났고, 지금의 마음상태가 약 28,4%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며 낙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금의 마음상태를 낙서로 표현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낙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공부내용, 험담, 아무렇게 생각없이, 발표할 때 내용, 컨닝할 때 내용 등이 있었다.

<표 13>에서 약 41.8%의 학생들이 낙서를 할 때 아무때나 그냥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을 나타내는 학생은 약 58%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우울하거나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또는 답답할 때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응답을 한 학생이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기분이 나쁠 때 낙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에서 학생들의 낙서활동을 할 때의 느낌을 살펴보면 20%의 학생이 낙서를 하면 즐겁다고 응답하였고 약 13. 4%의 학생이 낙서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 66%의 학생은 낙서에 대한 의식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석된다.

나. 교사의 어린이 낙서 활동에 관한 설문 내용

A. 낙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수업 프로그램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한 낙서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사전 연구 과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00초등학교 80명의 교사들에게 낙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31일 - 4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각 문항별 빈도(N)와 비율(%)로 나타내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이해도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매우 잘 알고 있다	10	12.5
2	잘 알고 있다.	23	28.75
3	보통이다.	38	47.5
4	알지 못한다	9	11.25
5	전혀 알지 못한다.	-	-
	합 계	80	100%

<표 16 >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견해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환경미화에 저해 활동으로 본다.	5	6.25
2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3	3.75
3	무의미한 자기표현으로 본다.	14	17.5
4	의미있는 표현 활동이다.	56	70
5	기타	2	2.5
	합 계	80	100%

<표 17 >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매우 필요하다.	-	-
2	필요하다.	42	52.5
3	보통이다.	38	47.5
4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합 계	80	100%

<표 18 > 교사의 낙서활동 교육의 경험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아주 자주 활용한다.	-	-
2	자주 활용한다.	8	10
3	보통이다.	33	41.25
4	활용하지 않는다.	35	43.75
5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4	4
	합 계	80	100%

<표 19 > 교사의 낙서활동의 활용 방법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인성지도에 활용	28	35
2	생활지도에 활용	14	17.5

3	표현활동 지도에 활용	35	43.75
4	환경미화 지도에 활용	-	-
5	기타	3	3.75
	합 계	80	100%

<표 20 >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과 자기표현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5	6.25
2	깊은 관계가 있다.	71	88.75
3	보통이다.	-	-
4	별 관계가 없다.	4	5
5	전혀 관계가 없다.	-	-
	합 계	80	100%

<표 21 > 연구 주제의 결과에 대한 교사의 견해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	19	23.75
2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	57	71.25
3	보통의 결과	1	1.25
4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	3	3.75
5	매우 부정적인 결과	-	-
	합 계	80	100%

<표 22 > 교사의 낙서를 이용한 수업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견해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낙서를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사가 있다.	57	71.25
2	낙서를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사가 없다.	23	28,75
3	기타	-	-

	합 계		100%

<표 15>에서 나타난 교사의 어린이 낙서 활동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이다>이상이 약 88.7%로 나타났다. 낙서활동에 대해 <알지못한다>이하의 답변에는 약 11.2%로 나타났으며 <전혀 알지 못한다>의 문항에는 답변자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교사들은 낙서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낙서활동에 대한 견해는 70%가 의미 있는 표현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17.5%가 무의미한 자기표현으로 보고 있었으며 약 10%의 교사들은 낙서활동이 어린이들의 표현활동에 필요 없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낙서활동은 어린이들의 성향에 따라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와 의미 있는 표현활동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의 답변이 52.5%로 나타났으며,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은 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낙서활동에 대한 교육의 경험은 자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0%정도에 지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교사가 약 43.7%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낙서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이다>이상이 약88.7%로 나타나고 <표 17>에서 52.5%의 교사가 낙서활동을 이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자만 직접 낙서활동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는 아주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낙서활동에 대한 활용 방법은 약43.7%가 표현활동 지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으로 인성지도에, 생활지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창의학습 지도와 미술수업의 일환으로 낙서활동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표 2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의 낙서활동과 자기표현과의 관계는 약95%가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들의 낙서활동은 자기표현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95%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의 견해에 따라 낙서적 미술 수업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에서 나타난 결과 약 71%의 교사가 낙서를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21>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낙서를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사가 없는 교사도 약 28%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나타난 교사가 낙서활동을 이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직접 낙서활동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는 아주 적은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Ⅳ. 연구의 실행

1.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를 적용하는 학교는 미술 수업 2차시가 연이어 있으므로 교수-학습 지도안 역시 2차시를 하나의 주제로 총 1시간 20분의 진행 분량으로 4회기의 수업내용을 설계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학습 지도안은 한국 미술 치료학회(1994)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고안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연구 대상자들이 매회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기표현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로 자기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성향을 알아 볼 수 있고 형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만든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하였고 2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학생과 또래집단과의 교우관계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3회기의<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가족의 범위와 가족에 대한 감정을 알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를 통하여 현재 학생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업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표 23 >

회기	주제	목표	내용	재료
1회	난화1	자신의 낙서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상상하여 나타낼 수 있다.	눈을 감고 각자가 그리고자 하는 선을 생각한 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 그 속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이미지들 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4B연필 색연필 물감 그 외
2회	인물화 검사	자신과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고 빠른 속도로 낙서하듯이 그릴 수 있고 다양한 얼굴 표정을 그릴 수 있다.	친구들의 여러 가지 표정을 관찰하고 관찰된 표정을 도화지에 옮긴다.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되 순차를 기록하여 또래집단과의 유대관계를 관찰 할 수 있다.	4B연필 색연필 물감 크레파스 그 외
3회	동적 가족화	<가족>을 주제로 가족들의 모습과 움직이는 상황을 그려낼 수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와 중요도를 알아볼수 있는 수업으로 가족을 떠올렸을때 부여된 역할의 모습을 그린다.	4B연필 색연필 물감 크레파스 그 외
4회	자유화	자신이 가장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릴 수 있는 수업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관찰한다.	4B연필 색연필 물감 크레파스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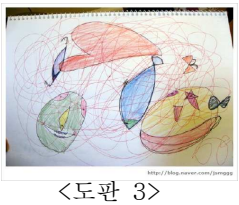
<표 24 > **가.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학습 지도안 1 -난화를 활용한 수업**

제재명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	표현기법	수채화, 수묵화, 파스텔화, 크레파스화		
학습목표	-자신의 낙서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상상하여 나타낼 수 있다. -떠오른 이미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준비물

준비	▶인사를 나누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수업주제<난화> 제시 후 목표확인 ▶무엇을 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화지를 앞에 놓고 눈을 감기 -수업 분위기를 안정되게 조성한다.	5’		참고자료 도화지 4B연필 색연필 붓펜 싸인펜 크레파스 수채용품 등
발상	▶자신에게 들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기쁨, 슬픔, 두려움, 편안함, 어지러움, 불안, 즐거움, 분노 등	5’	클래식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구상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의 감정을 도화지에 마음껏 낙서로 분출하기 ▶낙서놀이가 끝나면 눈을 뜨고 자신의 낙서를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생각하기 -연상이 되지 않는 아동은 옆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이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어떤 종류의 연상도 모두 수용한다. ▶표현 재료, 기법 선택하기	10’	장난스런 수업태도는 교사가 제지하여 다른 아동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현	▶자신의 낙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상상한 이미지를 가감, 병치시키면서 나타내기 -정확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꾸며진 이미지를 오려서 다른 도화지에 붙인 후 한 장의 그림으로 꾸민다. ▶연상된 이미지로 이야기 만들기 -도화지 뒷면에 연상된 이미지로 만들어낸 내용을 기입하도록 한다.	40’	표현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들이 자심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다.	
감상 및 평가	▶작품 제작 과정에서 느낀 점 발표하기 ▶서로의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감상하기 ▶친구의 작품에서 잘 된 점 찾아주기	15’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도록 한다.	
정리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며 회기를 마친다.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5’	아동들이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도판 1>

<도판 2>


<도판 3>

A. 수업 전개

눈을 감고 각자가 그리고자 하는 선을 생각 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 그 속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수업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난화 표현을 통해 내면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며 집단 구성원과 교사와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한다. 또한 표출된 자아인 낙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한 장의 그림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므로 아동들의 자기표현의 역할을 한다.

B. 수업의 적용

난화는 매우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제재로 아동들의 내재된 자아에서 무엇이 발견될 지 알 수 없는 의외성을 가진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동적이고 정동적인 내적 갈등이나 욕구 등의 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표현한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동의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교사는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5 > **나.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수업안 2 -인물화를 활용한 수업**

제재명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	표현기법	수채화, 크레파스화, 연필화 등		
학습목표	-자신과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고 빠른 속도로 낙서하듯이 그릴 수 있다. -다양한 얼굴 표정을 그릴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준비물
준비	▶인사를 나누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제재의 성격 확인 ▶참고작품 보며 학습 목표 확인하기		5’		참고작품 거울 도화지 4B연필

발상	▶친구들의 얼굴 표정 살피기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며 관찰하기(희노애락)	5’	장난스런 수업태도는 교사가 제지하여 다른 아동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물감 등
구상	▶다양한 표정과 어울리는 상황을 떠올려 보고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이 진지할 수 있도록안정감을 유지한다. ▶다양한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관찰한다. -아동들이 상황에 따른 표정을 지어본다. ▶다양한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을 종이와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 넣을 종이에 화면을 구성한다. -표정과 상황을 짝지어서 도화지에 기록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10’		
표현	▶동시에 여러 가지 표정을 한 화면에 빠른 속도로 낙서하기 ▶다양한 사람을 생각하며 변화를 주어가며 낙서해 나가기 -남녀 노소, 정면, 측면, 반측면, 크게, 작게 다양한표정, 머리 등 ▶화면 구성을 생각하며 낙서하기 ▶화면 가득히 친구들의 다양한 얼굴을 빠른 속도로 그리기 ▶그림 위에 채색하기 -상세한 인물묘사보다는 표정을 묘사하는 것을 중점으로 표현한다. ▶자신과 친구들을 그린 순서를 메모하게 한다. -중요한 과정이므로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40’	일반적인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아동이 느끼는대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감상 및 평가	▶서로의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감상하기 -서로의 작품을 보고 느낀점을 교환하고 제목을 붙여주기 -친구의 작품의 잘 된 점 찾아주기	15’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도록 한다.	

정리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며 회기를 마친다.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5’	아동들이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한다	

A. 수업 전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여 그리는 것은 아동의 무의식적인 심리세계를 표출한다. 아동은 자신의 얼굴표정과 친구들의 얼굴표정, 또한 상황을 접목시킴으로서 내면에 잠재된 갈등 및 문제를 표출 시킬 수 있다.

아동은 내재된 감정을 표출시켜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를 이해하며, 신뢰감 형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B. 수업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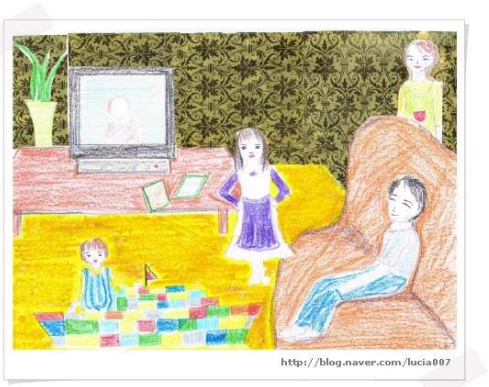
본 수업은 아동의 무의식적 심리세계를 파악하여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하고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유도한다.

아동의 작품은 분석이 가능한데 오른쪽 상단에 치우친 그림은 이기적이며 도전적인 성격, 반항적인 성향을 의미하고, 오른쪽 하단에 치우친 그림은 억압으로 인한 우울증과 패배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왼쪽 상단에 치우친 그림은 모든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를 나타내며 왼쪽 하단에 치우친 그림은 퇴행으로 인한 위축과 두려움, 도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나치게 큰 머리를 표현한 경우에는 현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6 > **다.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수업안 3 - 동적 가족화를 활용한 수업**

제재명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	표현기법	수채화, 크레파스화, 연필화 등		
학습목표	-<가족>을 주제로 가족들의 모습과 움직이는 상황을 그려낼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준비물
준비	▶인사를 나누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제재의 성격 확인 ▶참고작품 보며 학습 목표 확인하기		5’		

발상	▶가족의 의미를 학생들과 얘기한다. ▶가족의 범위를 생각해 본다.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생각하기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도 떠올린다.	5’	장난스런 수업태도는 교사가 제지하여 다른 아동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구상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도화지 화면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표현 재료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를 생각한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본다.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그리도록 한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한다.	10’	일반적인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아동이 느끼는대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참고자료 검정 싸인펜 도화지 4B연필 물감 등
표현	▶도화지에 그려진 가족들의 모습을 다른 재료를 이용해 꾸미도록 한다. ▶표현 마지막에 그림속의 인물상을 그린 순서를 쓰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인물상을 그린 순서와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유심히 관찰한다.	40’		
감상평가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가족의 역할과 행동을 설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감상하기	15’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도록 한다.	
정리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며 회기를 마친다.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5’	아동들이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도판 4>

<도판 5>

A. 수업의 전개

동적 가족화(KFD: kindtic Family Drawing)는 가족화(Drawing A Family)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이다. 동적 가족화는 개인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여 교사가 학생의 가족사항 및 가족 간의 신뢰감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생활 태도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판단은 아동의 과거경험이나 현재 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객관적,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존인지라기 보다는 자신을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인지가 적용된다.[50]

B. 수업의 적용

동적 가족화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27 >

50)(한국 미술 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아문화사 2000, p 541)

<table>
<tr><td>인물상의
행위
(actions)</td><td colspan="2">인물상의 행위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첫째, 행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가족 모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가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또는 상호작용행위가 없는가에 따라 가족의 전체적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각 인물상의 행위를 중심으로 가족 내 역할 유형 등을 알 수 있다. 주로 아버지, 어머니, 자기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공통되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성격형성의 중요한 장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대체로 아버지상은 TV나 신문보기, 일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어머니상은 부엌일이나 청소 등과 같은 가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자기상은 공부, 컴퓨터, TV보기, 노는 모습 등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해석은 그림의 양식, 상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td></tr>
<tr><td rowspan="6">양식

(styles)</td><td colspan="2">내담자는 그림에서 다른 인물상의 접근, 거리를 강조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명확하거나 혹은 교묘한 여러 가지 그림의 특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양식은 가족관계에서 자기의 감정과 상태, 신뢰감을 나타낸다. 양식은 일반양식, 구분, 포위, 가장자리, 인물하선, 상부의 선, 하부의 선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td></tr>
<tr><td>일반적
양식</td><td>보통의 신뢰감에 가득찬 가족관계를 체험하고 있는 아동의 그림이다. 복잡한 혹은 명백한 장벽을 나타내지 않고 온화하고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을 그린다.</td></tr>
<tr><td>구분</td><td>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선이나 곡선을 사용하여, 그림에서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이다. 또는 미리 용지를 접어서 몇 개의 사각형의 테를 만들고 그 안에 가족 성원을 각각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구분의 극단적 양식이다. 솔직한 애정표현이 허용되지 않을 때 또는 내성적인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가족성원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감정을 철회하고 분리시키려는 욕구를 표현한다.</td></tr>
<tr><td>포위</td><td>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물을 어떤 사물이나 선으로 둘러싸는 경우이다 위협적인 개인을 분리하거나 치우고 싶은 욕구로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자신이 개방적인 감정적 태도를 갖지 못할 때, 가족원 혹은 자기자신을 닫아버리는 양식이다. 두 인물을 함께 포위할 때 둘 사이를 밀접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책상, 그네, 줄넘기, 자동차 등으로 교묘히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td></tr>
<tr><td>가장자리</td><td>인물상을 용지의 주변에 나열해서 그리는 경우이다. 이 양식은 상당히 방어적이며 문제의 핵심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을 나타낸다.</td></tr>
<tr><td>인물하선</td><td>자신 혹은 특정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불안감이 강한 경우에, 그 인물상의 아래에 선을 긋는 경우가 있다.</td></tr>
</table>

	상부의 선	한 선 이상이 전체적 상단을 따라서 그려졌거나 인물상 위에 그려진 경우이다. 용지의 상부에 그린 선은 날카로운 불안 또는 산만한 걱정, 또는 공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부의 선	한 선 이상이 전체적 하단을 따라서 그려진 경우이다. 붕괴 직전에 놓여있는 가정이라든가 강한 스트레스하에 있는 아동이 안정을 강하게 필요로 하고 또 구조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나타난다.
상징 (symbols)	동적 가족화에서 나타난 모든 사물들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많은 동적가족화를 통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사물과 거기에 공통된 임상적 의미를 예측한 것이 상징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격성, 경쟁심	공, 축구공, 그밖에 던지는 물체, 빗자루, 먼지털이 등
	애정적, 온화, 희망적	태양(초등 2년 이하일 때 주로 등장), 전등, 난로 등이 열과 빛이 적절할 때. 위의 빛이나 열이 강렬하고 파괴적일 때는 애정이나 양육의 욕구,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노, 거부, 적대심	칼, 총, 날카로운 물체, 불, 폭발물 등
	힘의 과시	자전거, 오토바이, 차, 기차, 비행기 등 자전거를 제외하고 모두 의존적 요소에 의한 힘의 과시
	우울감정, 억울함	물과 관계되는 모든 것. 비, 바다, 호수, 강 등.
역동성 (dynamics)	가족 간의 감정을 용지의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인물묘사의 순위, 인물상의 위치, 인물상의 크기, 인물상간의 거리, 인물상의 얼굴의 방향, 인물상의 생략, 타인의 묘사 등이 속한다.	
	인물묘사의 순위	가족 내의 일상적 서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자기상이 제일 먼저 그려진 경우에 내담자의 가족내 정서적 위치에 대해서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물상의 위치	용지를 상하로 구분했을 때, 윗쪽으로 그려진 인물상은 가족내 리더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인물을 나타낸다. 반대로 아래쪽은 억울함이나 침체감과 관계한다. 좌우로 구분했을 때 우측은 외향성과 활동성에 관계하고, 좌측은 내폐성이나 침체성과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상을 남자는 우측에, 여자는 좌측에 그리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좌측에 그린 아버지 또는 남자 가족과 우측에 그려진 어머니 또는 여자 가족에 대해서는 해석상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단, 적절히 적응하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자기상을 우측에 그리는 일이 많다. 중앙부에 그려진 인물상은 문자 그대로 가족의 중심인물인 경우가 많다. 만약 아동이 중앙부에 자기상을 위치시켰을 때는 자기중심성이나 미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일도 있다.

	인물상의 크기	인물상의 키는 가족에 있어서의 존재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키가 크게 나타난 것은 존경받는 대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권위의 대상이거나, 여하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키가 작게 나타난 것은 경멸이나 무시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인물상간의 거리	인물상 사이의 거리는 피험자가 본 그들 사이의 친밀성의 정도나 혹은 감정적 거리를 의미할 수 있다. 인물상이 겹쳐지거나 접촉되어 있을때는 두 개인 간에 친밀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거리가 먼 두 인물상간에는 실제 생활에서도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소원한 경우가 많다.
	인물상의 방향	그려진 인물상의 얼굴의 방향이 '정면', '측면', '배면' 중에 어느 것인가에 대한 임상적 의미가 크다. 이것은 피험자의 가족관계 방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의 방향으로 봐서 정면은 긍정, 옆면은 반긍정 혹은 반부정, 배면은 부정적인 인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상의 생략	인물상을 지운 흔적은 지워진 개인과의 갈등이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고 강박적이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일 때도 나타난다. 또는 가족원의 일부를 용지의 뒷면에 그리는 경우는 그 개인과의 간접적인 갈등을 시사한다.
	타인의 묘사	가족구성원이 아닌 타인이 동적 가족화에 그려지는 경우 가족 내의 누구에게도 마음을 허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주로 내담자의 친구이다. 묘사된 타인과는 매우 친밀함을 나타낸다.
인물상의 특성 (figure characteristics)	음영이나 갈기기	신체부분에 음영이 그려질 경우 그 신체부분에의 몰두, 고착, 불안을 시사하고, 또한 정신지체증상의 호소와도 관련된다.
	윤곽선 형태	강박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내담자는 인물상을 빈틈없이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집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부분의 과장	신체부분의 확대, 혹은 과장은 그 부분의 기능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어떤 경우는 신체내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현실왜곡, 빈약한 현실감각, 정신장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낮은 지적기능을 시사한다.
	신체부분의 생략	신체부분의 생략은 종종 그 신체부위의 기능의 거부와 그 부분에 집착된 불안 또는 죄의식을 의미한다.
	얼굴 표정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직접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더욱 확실한 지표가 된다.
	의복의 장식	의복의 단추 모양이나 악세사리의 강조는 의존성 또는 애정욕구의 불만을 의미한다.
	회전된 인물상	인물상이 기울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인식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거절, 다른 가족성원과의 분리감정을 나타낸다. 즉, 보편적으로 강한 불안과 정서 통제가 되지 않는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정교한 묘사	그림이 극히 정교하고 정확하며 질서가 있을 경우, 환경구성에 대한 묘화자의 관심이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표현이 되었을 때는 강박적이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필압	선이 굵고 강하게 나타날 때는 충동이 밖으로 향하고 공격적이고 활동적이다. 반대로 약하고 가는 선으로 나타날 때는 우울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 일반 가정의 동적 가족화

학생들의 동적 가족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형식인데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버지는 TV나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어머니는 청소나 음식을 만드는 모습 등 가정 일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공부하는 모습으로 제각각 표현된다. 또 다른 형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는 모습인데, 온 가족이 TV를 보거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경우이다.

<표 28 > **라. 낙서적 미술프로그램 교수-학습 지도안 4 -난화를 활용한 자유화**

제재명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	표현기법	수채화, 수묵화, 파스텔화, 크레파스화		
학습목표	-현재 자신이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을 낙서를 통해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려진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준비물
준비	▶인사를 나누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수업주제<난화를 활용한 자유화> 제시 후 목표 확인 ▶편안한 마음으로 도화지를 앞에 놓고 눈을 감기 -수업 분위기를 안정되게 조성한다.		5’		도화지 4B연필 색연필 붓펜
발상	▶현재 자신이 무엇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어떤 것이라도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 ▶도화지 뒷면에 생각한 것을 순차적으로 쓰도록 하고 순위를 정한다. -몇 가지를 표현할 것인지도 생각하기		5’	-조용한 수업 분위기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싸인펜 크레파스 수채용품 등

구상	▶도화지 화면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표현 재료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를 생각한다. -그림의 소재가 여러 가지인 경우 화면배치에 대한 여러 예를 들어준다.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	장난스런 수업태도는 교사가 제지하여 다른 아동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현	▶도화지에 그려진 마음의 소리를 이용해 꾸미도록 한다. - ▶표현 마지막에 그림속에 표현된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어떤 내용인지 도화지 뒷면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 중에 학생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0’	표현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들이 자심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다.
감상 및 평가	▶서로의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감상하기 -서로의 작품을 보고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친구의 작품의 잘 된 점 찾아주기	15’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도록 한다.
정리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며 회기를 마친다.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5’	아동들이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한다

A. 수업의 전개

자유화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 중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그림에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지만 학교의 수업에 적용될 때는 학생들의 사고의 방대함으로 인하여수업안에 적용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개략적인 제한점을 지정한다.

B. 수업의 적용

어린이의 신체적인 성장 발달과 함께 어린이의 내면세계도 성장하는데 어린이의 내면세계가 구축되고 정립되는 시기에 자유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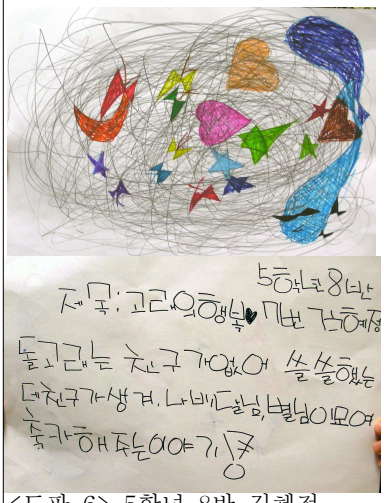
사는 어린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자유화의 결과물을 참고해 어린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간파해내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해간다.

2. 수업의 진행 결과

1회기부터 4회기까지의 수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중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목적을 달성한 대표작을 선별하였다. 또한 수업을 진행한 학급의 담임선생님과 협조체제를 갖춰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을 분석해 보았다.

수업 내용과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표 29 > **가.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 난화+이야기 만들기**

<table>
<tr><td>1회기</td><td colspan="2">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 난화+이야기 만들기</td></tr>
<tr><td>수업진행 현장의 상황</td><td colspan="2">수업을 시작하기 전 담임선생님께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셨고 연구자가 연구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업에 임하였다. 평소 낙서에 대해 생각한 바를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 낙서가 수업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학생들은 낙서가 수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구상단계가 끝나고 표현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주저함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낙서의 자유로움을 통해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td></tr>
<tr><td></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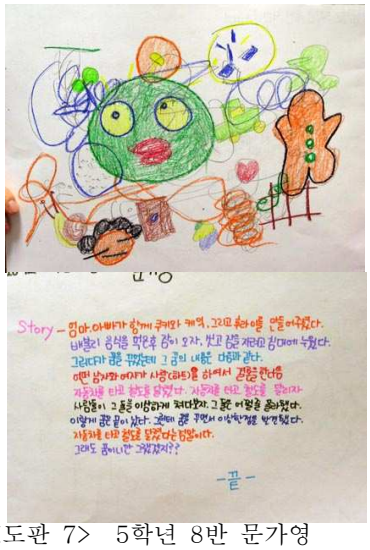
<도판 6> 5학년 8반 김혜정</td><td>이야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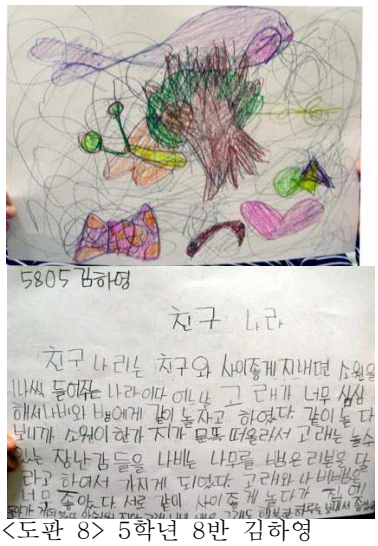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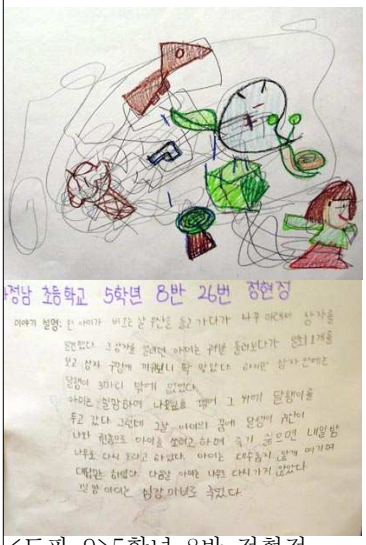
제목: 고래의 행복(♥)

돌고래는 친구가 없어 쓸쓸했는데 친구가 생겨 **나비**, **달님**, **별님**이 모여 축하해 주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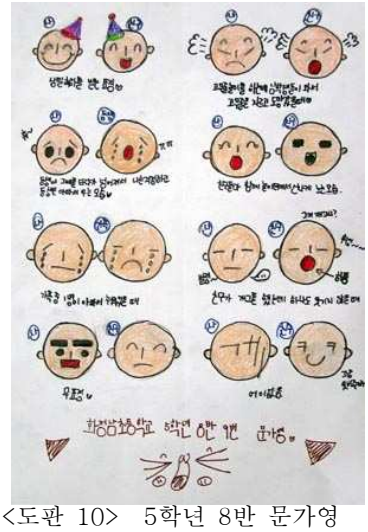
분석 내용

그림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감과 난화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들은 학생의 긍정적인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형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김혜정 학생의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대변해주고 있다.</td></tr>
</table>

수업 내용 및 분석	 <도판 7> 5학년 8반 문가영	이야기 만들기 **엄마, 아빠**가 함께 **쿠키**와 **케익**, 그리고 **계란후라이**를 만들어 주셨다. 배불리 음식을 먹은 후 잠이 오자, 씻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한 다음 **자동차**를 타고 **철도**를 달렸다. 자동차를 타고 철도를 달리자 사람들이 그 둘을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그 둘은 어쩔 줄 몰라했다. 이렇게 꿈은 끝이 났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동차를 타고 철도를 달렸다는 점 말이다. 그래도 꿈이니깐 그랬겠지? 분석 내용 낙서를 전체적으로 이용한 것을 보아 표현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지들끼리 중첩되는 현상은 가영 학생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형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양한 색으로 열을 바꿔가며 쓴 것으로 보아 미적 감각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야기의 내용 중 인물을 부모님이라고 지정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문가영 학생이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일 것이다.

	 <도판 8> 5학년 8반 김하영	이야기 만들기 친구나라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 소원을 1개씩 들어주는 나라이다. 어느 날 **고래**가 너무 심심해거 **나비**와 **뱀**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다. 같이 놀다보니까 소원이 한 가지가 문득 떠올라서 고래는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나비는 **나무**를 뱀은 **리본**을 달라고 하여서 가지게 되었다. 고래와 나비 뱀은 너무 좋았다. 서로같이 사이좋게 놀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아쉬웠지만 고래나비 뱀은 그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서 좋았다. 분석 내용 낙서에서 형상화된 이미지의 표현이 거칠고 화면 전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학생의 성격이 대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야기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뱀도 친구라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선한 성격이 표현된다. 담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으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도판 9>5학년 8반 정현정	이야기 만들기 **한 아이**가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다가 **나무** 아래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를 열려던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열쇠** 1개를 보고 상자 구멍에 끼워보니 딱 맞았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달팽이 3마리**밖에 없었다. 아이는 실망하여 **나뭇잎**을 꺾어 그 위에 달팽이를 두고 갔다. 그런데 그 날 아이의 꿈에 달팽이 **귀신**이 나와 **권총**으로 아이를 쏘려고 하며 죽기 싫으면 내일 밤 나무로 다시 오라고 하였다.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답만 하였다. 다음날 아이는 나무로 다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분석 내용 난화의 이미지가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섬세한 성격으로 보인다. 색상에 다양함이 없고 이미지의 테두리를 진한 선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은 약간의 집착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야기의 내용 중 상자의 열쇠구멍과 열쇠는 학생에게 있는 고민거리로 대입해 볼 수 있다.

<표 30 > **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

<table>
<tr><td>2회기</td><td colspan="3">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td></tr>
<tr><td>수업진행 현장의 상황</td><td colspan="3">준비 단계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여러 가지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학생들은 직접 얼굴표정으로 보여주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자신의 얼굴은 필수로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이용해 표정을 그리라고 하였고 그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자 여러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 그림을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표현방법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며 학생들은 만화적인 기법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즐거워했다.</td></tr>
<tr><td rowspan="4">수업 내용 및 분석</td><td> 

<도판 10> 5학년 8반 문가영</td><td colspan="2">분석 내용

이 학생은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그린 것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렸고 그 얼굴표정이 느껴지는 상황들을 기록했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은 자존감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 설명 중에서 동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중 동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친구와 자신의 감정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td></tr>
<tr><td>

<도판 11> 5학년 8반 서유진</td><td colspan="2">분석 내용

이 학생은 재료를 사용한 방법이 거칠고 면보다는 선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세심하거나 섬세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생이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으로 보이고 생일축하를 받았던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이 학생 역시 특정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고 친구와 자신의 감정의 정도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td></tr>
</table>

		분석 내용
	  <도판 12> 5학년 8반 김하영	이 학생은 자신의 웃는 얼굴과 친구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표현했다. 자신의 얼굴을 긍정적인 감정에 표현한 것을 보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볼 수 있고, 그림에 등장하는 친구들에게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표현에서 사람을 그릴 때 색상과 표현방법이 일률적인 것으로 보아 표현법이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 **다.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3회기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 나타내기	
수업진행 현장의 상황	수업에 시작하기에 앞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학생들은 가족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자신을 잘 챙겨주는 사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다. 교사는 가족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였다. 단, 활동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였고 학생들은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 보였다. 그림을 그린 후 발표를 하며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내용 및 분석	 <도판 13> 5학년 8반 전소현	분석 내용 이 학생은 가족을 그리라는 요구조건에 고모와 어머니를 표현하였다. 먼저 고모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의 2/3정도를 차지하게 그렸고 그 뒤에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을 그렸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이 느끼는 엄마와 고모 사이의 서열을 알아 볼 수 있고, 학생이 고모의 일하는 모습을 더 멋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가 고모와 어머니 선에서 멈춘 것으로 보아 학생이 다른 가족에게 느끼는 신뢰감의 정도가 낮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도판 14> 5학년 8반 이경원	분석 내용 이 학생은 가족의 범위에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누나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낮음을 보여준다.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니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물들을 물건들로 포위한 것과 그 인물들에 자신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자신이 개방적인 감정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자기자신을 닫아 버리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학생은 할머니와 누나사이의 신뢰감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도판 15> 5학년 8반 이설원	분석 내용 이 학생은 가족의 범위에 직계가족이 아닌 사촌 누나와 형들을 표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사촌들과의 돈독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약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도판 16> 5학년 8반 신호중	분석 내용 이 학생은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이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이 강하고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면을 절단해 아버지가 일하는 책상을 구분한 것도 아버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2> **라.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

<table>
<tr><td>4회기</td><td colspan="2">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td></tr>
<tr><td>수업진행 현장의 상황</td><td colspan="2">수업을 시작할 때 현재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화지 뒷면에 쓰게 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한 것은 다양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금요일에 있을 신체검사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듯 보이더니 점차 조용해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의 표현방법을 따라하는 학생도 있었고 5학년이라는 나이에 맞게 대수롭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 중 미술 수업시간이 싫다는 학생을 발견하였고 연구자는 담임선생님께 자문을 구해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였다.</td></tr>
<tr><td></td><td>
<도판 17> 5학년 8반 김유진</td><td>그림내용
엄마, 아빠가 싸우셔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다. 엄마, 아빠를 다시 친해지게 해주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이 친해지길 바라는 나만의 상상을 그렸다.
분석내용
이 그림은 학생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최근 부모님의 다툼으로 심경이 불편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화면의 전면에 있는 나무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보아 학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고, 구름의 표현을 보아 우울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일기장에도 부모님의 다툼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을 썼다고 한다.</td></tr>
</table>

수업 내용 및	 <도판 18> 5학년 8반 정현정	그림내용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전부 그림의 떡 분석내용 이 학생은 표현재료로 싸인펜과 색연필을 사용하였는데 싸인펜으로 연습의 과정 없이 단번에 화면구성을 한 것으로 보아 미술 표현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다. 화면의 중심에 자신을 그린 것을 보아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으로 보이며, 테두리 안의 그림이 그려진 순서가 학생이 생각하는 순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도판 19> 5학년 8반 오유정	그림내용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피아노를 갖고 싶다고 졸라서 샀는데 이제 안 쳐서 엄마가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시다.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머리를 잘랐는데 남자애들이 바가지 머리라고 해서 속상하다. 입주위에 열병이 나서 (열이 한 곳에 모여서) 상처가 난 것과, 입안에서 어금니가 살을 뚫고 나오고 있어서 입을 벌리기 힘든 것을 나타내었다 실과의 봉선화가 물을 아무리 주어도 키는 그대로 인 것 같다. 분석내용 이 학생은 네 가지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림을 그린 순서에 따라 마음속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학생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피아노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내용의 모든 주체가 자신으로 보아 자신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분석	 <도판 20> 5학년 8반 박형규	그림내용 싫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었다. 시간표에 미술이 없는데 미술을 해서 싫었다. 분석내용 화면의 중심에 인물을 그렸으나 인물이 작고, 인물을 둘러싼 배경색이 인물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아 교실 안에서의 존재감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인물을 어떤 물체가 포위하였지만 교실의 환경을 표현한 것이므로 분석을 하지 않는다.
	 <도판 21> 5학년 8반 11번 서유진	그림내용 내 마음은 불안하다. 엄마랑 안경채널에 안경을 쓰기 위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내용이다. 분석내용 이 학생은 자신의 눈에 대한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자신이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주변 환경을 표현하면서 포위하지 않고 공간을 틔어준 것으로 보아 자신의 개방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배경의 검정색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검정색 위에 푸른색을 덧칠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3.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지금까지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1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 2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 3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 4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담임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성향을 알아 볼 수 있고 형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만든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2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학생과 또래집단과의 교우관계를 알아 볼 수 있었으며 3회기의<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가족의 범위와 가족에 대한 감정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를 통하여 현재 학생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종합 해 볼 때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수업 프로그램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지도안의 수업 결과물을 통해 나타난 그림의 내용과 표현 방법, 화면의 구성, 이야기의 내용으로 학생이 내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바가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현재 심리 상태와 생각, 학생들의 그림에 표현된 내용들이 학생의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미술 수업의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지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하고 미술을 통해 심리를 분석 할 수 있도록 미술 심리 지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출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낙서를 통한 미술 수업에 대한 느낌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학생들의 낙서에 대한 경험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아주 많이 한다	5	≒16.6
2	많이 한다	7	≒23.7
3	보통이다	13	≒43.3
4	하지 않는다	5	≒16.6
5	전혀 하지 않는다	-	-
	합 계	30	≒100%

<표 34> 학생들의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한 후의 느낌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아주 즐거웠다	3	10
2	즐거웠다	6	20
3	보통이다	16	≒53.3
4	즐겁지 않았다	4	≒13.3
5	전혀 즐겁지 않았다	1	≒3.3
	합 계	30	≒100%

<표 35> 학생들의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문 항	평균	
		빈도	비율
1	많이 필요하다	2	≒6.6
2	필요하다	6	20
3	보통이다	18	60
4	필요하지 않다	2	6.6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6.6
	합 계	30	≒100%

<표 33>에서 낙서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보통이다>이상의 답변은 약 83.6으로 낙서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학생들이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한 후의 느낌을 살펴보면 <즐거웠다>이상의 문항에 30%의 학생이 답변하였고 <보통이다>의 문항에 약 53.3%의 학생이 답변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에 대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35>에서 학생들이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이상의 문항에 약 86.6%가 답변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인간소외현상, 인간성 상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성적만을 우선시 하여 학생들의 자아표현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형태의 미술교육은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아동들에게 아동내부의 잠재 가능성을 보다 쉽고 충분하게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낙서를 통해 자아표현을 하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낙서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어린이라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낸 것을 '낙서했다'고 하거나 쓸데없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하여 자기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리도록 강요하여 어린이들의 자기표현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낙서 활동을 학습에 이용하면어린이들도 보다 즐겁고 흥미로운 미술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학생들이 말로 전하지 못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어린이들에게 낙서를 통한 교수방법을 제안하여 학생들이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그 결과물을 해석하여 학생들의 실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자기표현과 낙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광주 지역 선생님을 대상으로 낙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적용 대상의 표본 집단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화정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낙서를 통한 미술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자기표현과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낙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낙서의 일반적 특징과 낙서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실태조사를 위해 실행한 설문지의 결과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낙서활동에 대한 이해도, 교사들의 낙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실행 단계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 수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표본 집단에 적용하였다. 이 결과 1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 2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 3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 4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담임선생과 연구자와 협조체제를 갖춰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사전 지식과 미술 심리치료의 이론적 내용을 첨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1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상상하여 나타내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성향을 알아 볼 수 있었고 형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만든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2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한 감정 나타내기>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학생과 또래집단과의 교우관계를 알아 볼 수 있었으며 3회기의<낙서놀이를 통한 가족의 모습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가족의 범위와 가족에 대한 감정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회기의 <낙서놀이를 통해 나의 생각 나타내기>를 통하여 현재 학생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종합 해 볼 때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수업 프로그램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지도안의 수업 결과물을 통해 나타난 그림의 내용과 표현 방법, 화면의 구성, 이야기의 내용으로 학생이 내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바가 표현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낙서를 통한 미술 수업에 대한 느낌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한 후의 느낌을 살펴보면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에 대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고,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이상의 문항에 약 86.6%가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현재 심리 상태와 생각, 학생들의 그림에 표현된 내용들이 학생의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미술 수업의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지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하고 미술을 통해 심리를 분석 할 수 있도록 미술 심리 지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출 것을 권유한다.

<참 고 문 헌>

김미연,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하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2000)

김원주, “낙서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링과 바스키아의 諷刺와 諧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4)

교육 인적 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5학년, 2007

권준범, 「초등미술과 교수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5)

김 정, 「아동미술 입문」 (서울: 일지사, 1978)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2006)

박성봉, 「대중 예술의 미학」 (서울: 동연, 1997) p.404-406.

박준원, 「예술노트」 (미술문화, 1998)

백호선, “현대회화에 나타난 아동학적 요소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7)

안호범, 「미술을 통한 교육」 (보육사, 1990),

양정희, 「21세기를 위한 아동 미술교육」 (서울: 학지사, 1997)

와타나베 마모루, 이병용譯 , 「예술학」 (현대미학사, 1994)

이선교, “낙서를 이용한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8)

이부영, 「분석 심리학」 (서울: 일조각, 1998)

이유경, :예술로서의 창조적 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7)

이정인, "兒童美術의 創意的 表現과 動機誘發과의 相關關係"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1991)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예경, 2006)

장애란, "낙서적 경향을 통해 나타난 내면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6)

조신자, “신표현주의에 나타난 낙서화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93)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86)

천명선, "R.Arnheim의 도성예술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2)

http://imagegingo.naver.com

http://cafe.naver.com/whee21

http://blog.naver.com/jsmggg

http://blog.naver.com/lucia007

<부　　록>

<부록1>　　<교사의 어린이 낙서 활동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낙서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설정된 질문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응답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시하는 의견 하나하나는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모든 문항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 질문의 문항에 평소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던 의견과 동일한 곳에 V표를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기타 란에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정 소 영 올림

*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　　여(　　)
2. 연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이상(　　)
3. 교육 경력: 5년 이하(　　) 6-10년(　　) 11-15년(　　) 16-20년(　　)
　　21년 이상(　　)

4. 현재 담임 학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교과전담(　　) 교감 (　　)

*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낙서 활동에 대하여 생각이 일치하는 번호를 써 주십시오. 기타 란은 간략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낙서활동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알지 못한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2.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낙서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 미화에 저해 활동으로 본다 ②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③ 무의미한 자기 표현으로 본다 ④ 의미 있는 표현 활동이다
⑤ 기타 (　　)

3.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교육에 낙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낙서활동을 어린이 교육에 활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아주 자주 활용한다 ② 자주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활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5. 선생님께서 낙서 활동을 교육에 활용하신다면 어떤 방면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
① 인성지도 ② 생활지도 ③ 표현활동 지도
④ 환경미화 지도 ⑤ 기타(　　)

6.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낙서 활동과 자기표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② 깊은 관계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 관계가 없다 ⑤ 전혀 관계가 없다

7.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연구 주제 [자기표현을 위한 낙서적 미술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

①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　②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　③ 보통의 결과

④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　⑤ 매우 부정적인 결과

8. 선생님께서는 낙서를 통한 미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부록2>
<어린이용 설문지>

자기 표현 평정 척도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다음의 20개 문항을 잘 읽고 각각의 문장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답하는 요령은 평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말이나 행동을 할 때
10번 중 그러한 경우가 아래와 같다면,

1. 9번 이상이면 → “항 상 그렇다.”
2. 7-8번 정도이면 → “자주 그렇다.”
3. 5-6번 정도이면 → “ 가끔 그렇다.”
4. 3-4번 정도이면 →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1-2번 정도이면 →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쓰여진 칸에 V 표시를 하세요.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자기표현평정척도

구분	번호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 그렇다
			1-2번 정도	3-4번 정도	5-6번 정도	7-8번 정도	9번이상
내용	1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2	나는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 한다.					
	3	나는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	나는 사과를 많이 한다.					
	5	나는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6	나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7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9	나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음성	10	나는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1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12	나는 말이 입안에서만 중얼거린다.					
	13	나는 억양이 어색하다.					
	14	나는“에-”, “음-”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15	나는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 한다.					
	16	나는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17	나는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체언	18	나는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19	나는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굴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20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 있다.					

<부록 3>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낙서활동에 관한 연구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낙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사실대로 다음의 응답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 여러분의 개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 )
2. 성별: 남( ) 여( )
3. 좋아하는 과목: ( )
4. 싫어하는 과목: ( )

*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번호를 써 주십시오. 기타 란은 간략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1.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 나는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
① 있다 ② 없다

4.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① 글을 쓴다　　② 그림을 그린다　　③ 말을 한다
④ 시를 짓는다　　⑤ 기타(　　)

5. 나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나는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 하고 싶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어린이들의 낙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어린이 여러분들은 낙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공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②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어린이 여러분은 낙서를 해 보았나요? .....(　　)
① 아주 많이 한다　　② 많이 한다　　③ 보통이다
④ 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3.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낙서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하나요?...(　　)
① 신문지나 못쓰는 종이　　② 책이나 공책　　③ 벽(교실,건물,담)
④ 흙바닥　　⑤ 기타 (　　)

4. 낙서의 내용은 대체로 무슨 내용인가요?.....(　　)
① 지금의 마음 상태　　② 노래 가사　　③ 비밀 이야기
④ 그림　　⑤기타(　　)

5. 어린이 여러분들이 낙서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
① 즐거울 때　② 우울할 때　③ 미울 때　④ 아무때나　⑤ 답답할 때

6. 어린이 여러분들은 낙서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
① 아주 즐거웠다　　② 즐거웠다　　③ 그저 그랬다
④ 좀 기분이 나빴다　　⑤ 아주 기분이 나빴다

<부록 4>

설문 조사

지금까지 어린이 여러분은 낙서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미술수업을 하였습니다.

1회기- 낙서를 이용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를 이용해 이야기 만들기
2회기- 낙서적표현을 이용하여 인물의 감정 표현을 그리기
3회기- 낙서적 표현을 이용하여 가족의 모습을 그리기
4회기- 낙서적 표현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 그리기

4회기에 걸친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1. 어린이 여러분들은 낙서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
① 아주 즐거웠다　② 즐거웠다　③ 그저 그랬다
④ 좀 기분이 나빴다　⑤ 아주 기분이 나빴다

2. 낙서를 이용한 미술수업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떤가요?.....(　　)
①아주 즐거웠다 ②즐거웠다 ③그저 그랬다 ④즐겁지 않았다 ⑤ 아주 즐겁지 않았다.

3. 어린이 여러분들은 낙서를 이용한 미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많이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학 번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주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